28 vol.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Cover story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 유니버설발레단**

1984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직업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은 세계 21개국 2,400여 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으로 성장해왔다. 2011년부터 지속된 〈유니버설발레단 월드투어〉를 통해 클래식 발레는 물론 창작 발레 〈심정〉과 〈춘향〉을 해외에 소개하며 본격적인 '발레 한류'를 이끌고 있다.

2019 경남메세나대회에 초청된 유니버설발레단은 〈호두까기인형〉 그랑 파드되(grand pas de deux)를 선보여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축하공연을 선사했다.

Contents

28 vol.

메세나 칼럼	02	좋은 직장을 위한 지역사회 메세나의 가능성
메세나 인터뷰	06	공연티켓 끊는 기업, (주)지엔티 안종국 대표
아름다운 동행	08	경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파트너 나-아트프렌즈 한국토지주택공사 X 경남메세나협회
	12	피우다, 의령 문화예술의 꽃 청호환경산업㈜ X 노리마당
메세나 스페셜	16	이디스트055
포토포엠	18	운문산의 새 아침 by. 나상호 촌장
활동후기	20	올키즈스트라김해 올 한 해 올키즈스트라김해가 받은 선물
	23	경남문인협회 문화교류의 물길을 잇다
문화공간	26	하동, 느리고도 빠른
회원사 소식	30	무학, 100년의 희망으로 도약
메세나 소식	34	2019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36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38	2019 경남메세나대회
	44	전국 메세나단체 공동 세미나
	45	찾아가는 음악회
	46	문화나눔사업
인조이 컬처	48	베토벤 탄생 250주년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천재

발행인 황윤철
발행일 2020. 1.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 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좋은 직장을 위한 지역사회 메세나의 가능성

서 우 석_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WORK-life balance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좋은 직장"의 조건

노동시장에서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자주 발생한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졸자들이 증가하는데, 다른 한쪽에는 필요인력을 구하기 힘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힘들게 뽑아 적지 않은 투자로 교육시킨 유능한 인력이 떠나는 상황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젊은 세대의 직장인일수록 "좋은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다는 점이다. 경제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발전 기회를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이 많은 세대 직장인들보다 더 강하다. 다른 하나는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야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야근 없는 직장을 "좋은 직장"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조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일과 삶의 양립이라고 하는 "워라밸"에 대한 열망이 특히 젊은 세대의 직장인에게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방식과 영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야근을 많이 하는 직장인일수록 실제 생산적 업무시간의 길이가 짧다는 "야근의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해 보인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지 조사에 지난 몇 해 참여하면서 경영진 및 직원과 인터뷰해 본 결과, 야근이 강제되지 않으며,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것이 "좋은 직장"의 이상으로 자리 잡는 변화가 체감되었다. 제한된 시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직원의 여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일정 근무 기간 이후 한 달 넘는 안식제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당연한 규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첼리스타앙상블의 〈사를 읊는 오후〉

지역사회가 문제되는 이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서 근무 여건 개선이 녹록하지 않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다.

야근을 없애고 여가시간을 보장해 준다고 젊고 유능한 인력이 가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활동과 문화향유의 여건이 수도권과 많이 차이난다. 반면, 기업이 직접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의 의미는 줄고 있다. 사내 동호회 지원이나 등산과 같은 집합적 여가활동을 젊은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의 연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만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의 근본 원인은 결국 지역 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역의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의 여가 활동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지자체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지역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여가 활동의 여건이 생산지 경쟁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이 이슈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커지고 있다. 여가활동의 여건이 우수 인력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 경쟁력이나 장소 경쟁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메세나에서 지역사회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메세나 활동의 가능성
그렇다면 "좋은 직장"을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과정에서 메세나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환경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으로 나누어 관련 이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적 요인

먼저,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근래 두 가지 정책적 환경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메세나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다수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되었다.

1964년에 구로수출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2013년에는 산업 단지 1,000개 시대에 진입했고, 최근까지도 산단 지정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노후화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는 문화, 복지, 편의 시설 등 근로자 삶의 질 관련 공간 비중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청년인력 유입 감소와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난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노후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 노후화로 연결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체부나 문화정책 기관들이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단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메세나 활동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의 증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문화재생 성격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문화도시 사업은 과거의 개별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 동향은 기업이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미국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벌이는 창의적 장소 만들기(Creative Placemaking) 사업을 보면,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수도 사업에도 지역의 민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업이 지역 공간의 문화적 재생이나 협력 파트너로 개입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메세나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캡텍코리아와 매칭펀드 결연을 맺은 경남솔로이스츠의 정기연주회

주체적 요인

다음으로 주체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메세나 활동의 변화 필요성과 지역에서의 문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요구된다.

기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

첫째 메세나 활동의 변화 필요성이다. 이전의 메세나 활동의 초점은 예술가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분히 외부 지향적이었다. 이제 기업이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메세나 활동이 좀 더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성격 보다는 근로자도 같이 지역 환경 변화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메세나 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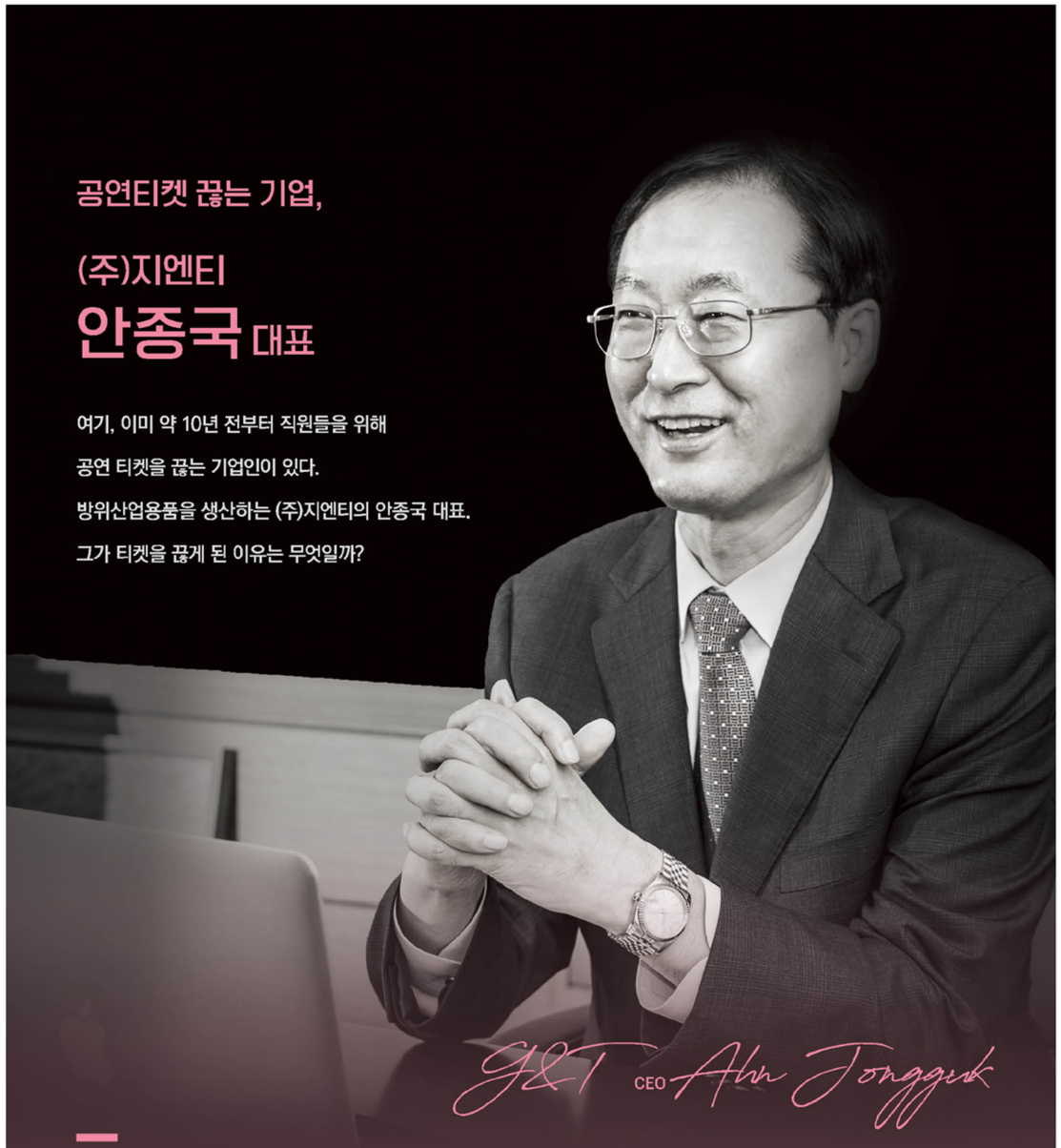
젊은 직장인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대 속에는 의미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메세나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 디자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전반적으로 전문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일상의 생활문화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처럼, 메세나에서도 기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메세나 활동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인력 구성원이나 자원 동원 가능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의 제공만으로 메세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단과 같은 다른 매개단체들, 그리고 기업의 요구와 현실을 잘 이해하는 메세나 단체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예술생태계 변화의 주축으로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현황과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성취할 비전과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면서,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가 여러 장르와 직종을 넘어서 형성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_정인정 사진_BAO



공연티켓 끊는 기업,

(주)지엔티 안종국 대표

여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직원들을 위해
공연 티켓을 끊는 기업인이 있다.
방위산업용품을 생산하는 (주)지엔티의 안종국 대표.
그가 티켓을 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여가가 늘어나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해지고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확산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가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은 경남지역에선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인 일터를 중심으로 여가 문화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업에서 먼저 이러한 판을 깔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 처음 직원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회사가 창원 팔용동에 있다가 2007년에 대산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창원 시내에 있을 때와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직원들이 쓸쓸하겠다, 특히 싱글들은 데이트 기회도 적어져서 더 외롭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음엔 회사 싱글들을 모아 콘서트 표를 사주면서 평소 마음에 뒀던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마침 명성황후 뮤지컬 공연이 있어서 '아 이 공연은 다 좋아하겠다, 궁금해하겠다' 싶어서 단체 관람을 했죠.

Q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부담을 안고도 추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만만찮죠.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이런 티켓을 두 장씩 끊으니까 기십만 원 하죠. 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차례 보거든요. 사실 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큰 기업과 비교하면 연봉이나 근로 환경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이나마 해소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자 하는 거죠. 사실, 직원 입장에선 월급에서 티켓비를 선뜻 지출하기 쉽지 않잖아요? 회사가 그 비용을 할애하는 거죠. 그걸 계기로 본인의 취향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도 좋죠.

Q 직원들의 취향이나 요구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나요?

A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50% 값만 현금으로 줘도, 영화 보고 밥 먹고 맥주 한잔할 수 있는 돈이다', '복지비는 내 권리이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냐'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거 돈으로 주면 누가 공연 보러 가겠어요? 안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의견 수렴은 하되 그렇게 할 수 없다, 원칙을 세웠죠. 대신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연 선택지를 2배수로 해서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직원들의 이해도도 높아졌어요. 직원들이 사석에서 자랑삼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오페라나 뮤지컬도 보여준다' 얘기한다고 전해 듣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자긍심 느낀다, 그러면 성공한 거다, 비용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후일담이 있다고요?

A 제가 경남오페라단을 지인 권유로 오랫동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일 트로바토레' 공연 초대권이 왔었어요. 담당자한테 직원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신청하도록 했는데, 50대 초반 되는 현장의 남자 직원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단에서 보내준 대사집도 그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정말 오페라 관람은 아무도 안 가겠지 했거든요. 이탈리아어로 된 아리아라 내용도 어렵고 낯서니까요. 강제적으로 관람하라 한 것도 아닌데 바로 신청 들어오는 걸 보고 성공했다, 조금씩 사내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Q 작은 기업이지만 복지 부분을 특히 신경 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A 공연 관람 외에도 해외연수, 문화체험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는 이유는 '작은 기업도 일할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동남아를 비롯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곤 하니까 직원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많이 어려워하고요.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잘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Q 얼마 전에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고 이사사로 활동 중이신데, 이전부터 문화예술단체 후원은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A 경남오페라단과 창원남성합창단, 새로미가곡합창단 등과 인연이 돼서 소소하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솔직히 이런 쪽으로 눈 돌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메세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수록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이 직원들과 함께 여가나 문화를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 풀고 또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회사가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_노경무 사진_BAO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메세나협회

with-with partnership

사업 이름에 '프렌즈'가 들어가 있어서일까, 협약식이 체결된 창원3·15아트센터 강의실은 오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경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파트너, LH아트프렌즈

경남메세나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남 지역 10개 예술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LH아트프렌즈'의 첫 시작을 다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함이다.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 간의 교류와 발전에 대해서 논하고, 앞으로의 협업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LH와의 문화예술 협약 체결

지난 10월 17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문화예술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경남지역 기업 메세나가 활성화되고, 예술 기부 문화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서로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경남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LH아트프렌즈'는 경남메세나협회와 LH가 협약 체결과 동시에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서, 경남의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하여, 창의적 역량을 나누며 LH와 함께 우정을 쌓아갈 10개의 경남 예술단체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1 협약서에 사인하는 LH 서창원 경영혁신본부장
2 LH아트프렌즈 사업 설명회장

기업과 예술의 WIN-WIN 파트너십

경남메세나협회 강신철 전무는 "기업 환경이 어려운 요즈음 공기업의 메세나 활동 참여는 매우 뜻깊다."면서 "기업과 예술이 만나 Win-Win 하는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술단체들도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창원 LH 경영혁신본부장(이하 서 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LH와 경남메세나협회, 그리고 LH아트프렌즈 참여 예술단체들과의 협력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특히 LH와 경남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젊은 직원들의 30% 정도가 경남으로 이주해왔고, 앞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영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남 소재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LH와 박경리 작가의 특별한 인연

협약식에 자리를 함께한 예술단체들도 소감을 함께 나누었는데, 경남문인협회장 김일태 시인이 LH와 박경리 작가 사이에 있었던 재밌는 일화를 공유해주었다.

현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통영 지역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구역 안에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쓴 소설의 제목만 봐도 자신이 사는 고장에 대한 강한 애착을 상상할 수 있는데, 예상대로 선생은 쉽사리 집을 내어 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담당자는 박경리 선생에게 "선생님이나 저희나 토지 팔아먹고 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경리 작가는 개발공사의 사업을 '땅장사', '투기'라고 치부하며 여전히 의견을 꺾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기업명에서 '개발'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국토지공사'로서 기업의 비전을 재정비할 것임을 밝혔고, 그들의 진정성에 박경리 작가는 땅을 양보해주었다고 한다.

LH아트프렌즈가 의미하는 것

무수히 많은 기업 사이에서도 공기업은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국고로 운영되는 기업이기에 크고 작은 사업을 결정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기업이 이 같은 문화예술사업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은 뜻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 개인의 표현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공익성을 가진 분야로 인정하고, 예술인과 함께 소통하고 작품과 공연을 누리는 등,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준다.

메세나 매개활동의 중요성

LH가 이러한 예술문화사업에 참여하게 된 데까지, 지난 12년 동안 기업메세나 문화를 열심히 일군 경남메세나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2007년 당시 79개 기업이 모여, 현재는 217개 회원사를 확보하며, 누적 결연 1000개 팀, 누적 지원금 200억 원을 돌파하였다. 이쯤 되면, 경남메세나협회의 손이 닿지 않은 예술단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수준이다. 경남에서 피어난 기업 메세나 꽃의 향기가 널리 퍼져, 이 땅의 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LH아트프렌즈 10개 예술단체

소개 및 활동내역

경상남도 문인협회

1984년에 설립된 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남의 대표 문학단체.
▶ 하동 평사리에서 열린 토지문학제에 참여하여 영호남 문학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영호남 간 문학적 연대, 상생을 모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천예총

사천시 문화예술 행사 전반을 주관하는 단체.
▶ 2019년 11월 8~10일 3일 동안, 사랑애(愛)음악회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민이 문화예술로 행복을 나누었다.

남해미술협회

소외된 남해 지역미술을 살리고자 마음과 뜻을 모은 단체.
▶ 2019년 12월 6~15일, 열흘 동안 남해생활문화센터에서 소품나눔전을 진행했다. 25명의 작가가 4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군민들과 함께 소통했다.

극단현장

1974년에 창단한 전문극단이다.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연으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단체.
▶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이라는 흥겨운 토종 코믹 마당극을 선보여 지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남페스티벌앙상블

젊고 유망 있는 연주가들이 참신한 기획과 구성의 음악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하는 단체.
▶ 〈보헤미안 판타지, 실내악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동유럽 음악의 짙은 감성을 표현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진주미술협회

1949년에 창립된 유서 깊은 협회로, 진주 지역 미술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
▶ 전국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작들을 경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했다. 뛰어난 재능의 신진작가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클랑피아노앙상블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피아노 앙상블.
▶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건반 악기 연주를 성악, 현대무용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참신한 공연을 기획했다.

라 스텔라 오페라단

창원대 음악대학 교수진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문 오페라단.
▶ 오페라 Tosca(토스카) 무대를 올렸다. 산-관-학이 힘을 모아 지역 시민들에게 오페라를 선사하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경남호른앙상블

매력적인 관악기, 호른으로만 구성된 앙상블.
▶ 2019년 겨울, 정기연주회를 열어 호른 특유의 따뜻한 매력을 관객들에게 알렸다.

진해미술협회

향토 예술의 창달로 진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 진해예술촌에서 소품전을 열고, 작품 도록을 겸한 2020년 달력을 제작하여 지역의 일상에 예술의 향기를 퍼트렸다.

청호환경산업(주)
×
노리마당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까랑까랑 꽹과리 소리가 의령에 울려 퍼졌다. 이어 현란한 장구 리듬이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가 하면, 북소리가 가슴에 쿵쿵 닿아온다.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연희패 '노리마당' 정기공연 '몽(夢)-꿈꾸다' 풍경이다.

피우다, 의령 문화예술의 꽃

청호환경산업(주) 이동기 회장과 연희패 '노리마당' 김성국 회장은 공통점이 많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발 벗고 나서는 점이 그렇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부지런히 나선다. 서로의 닮은 점에 끌렸을까?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나선 그들을 만났다.

청호환경산업(주), 지역과 함께 성장하다

의령군민을 위한 볼링대회를 열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꾸준히 나선다. 청호환경산업(주) 이동기 회장의 남다른 지역 사랑을 보여주는 면모다. 이외에도 그는 의령라이온스클럽 회장, 의령읍체육회 회장,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마음을 보탠다.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살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건만, 그에게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잘 경영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첫째로 기업 내부 환경을 잘 가꾸고 직원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결국 기업과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동기 회장의 지역 사랑은 분야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문화예술 부문에서 빛을 발한다.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지역에 전달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기꺼이 힘을 싣는 식이다. 지역과 지역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문화예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마침 기업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창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창립 멤버로 함께하게 됐죠."

의령군민을 위해
무료 정기공연을 여는
지역의 대표 문화단체

노리마당, 문화예술의 흥을 일으키다

경남메세나협회에 가입 후 이동기 회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만난 사람이 연희패 '노리마당'의 김성국 회장이다. 사실 두 사람은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연을 맺기 전부터 지역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던 사이로, 인터뷰가 있기 며칠 전에도 겨울을 맞아 열린 김장 봉사에서 마주쳤을 정도다. 이렇듯 지역 곳곳을 살피는 김성국 회장의 지역 사랑에 이동기 회장의 마음이 동했다. 2015년 청호환경산업(주)과 노리마당의 매칭펀드가 이루어진 것이다.

"후원할 단체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 의령에도 좋은 문화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후원에 수반될 행정 업무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았는데, 그게 노리마당이었습니다."

'노리마당'은 2013년 의령에서 시작된 연희패로, 의령군민들이 모여 결성한 이후 지금껏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다. 이제는 매년 의령군민을 위한 무료 정기공연을 여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단체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노리마당을 지역민을 위한 예술단체로 지켜온 김성국 회장의 노력이 컸다.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니 수익사업에만 치우쳐 문화예술의 본질인 자율성이나 즐거움이 퇴색돼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중심으로, 관객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청호환경산업(주)과 노리마당이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2018년 매칭펀드를 신청하지 못해 노리마당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동기 회장이 공연을 위한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선뜻 내놓은 것이다. 이동기 회장의 후원을 발판 삼아 노리마당은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과 다름없이 수준 높은 무대를 올릴 수 있었다. 김성국 회장은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이동기 회장에게 고맙단다.

"공연단체가 하나의 무대를 올리기까지, 연습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면 그 경제적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나 이동기 회장님의 지원은 공연 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고, 외부 팀을 섭외해 공연을 더욱 폭넓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 저희가 더 열심히 연습하는 계기기도 하죠. 주위에서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무대 준비를 허투루 할 수 없으니까요."

무대를 기획할 때 비용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매해 노리마당이 지역민들을 위해 선보이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도 노리마당은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을 초청해 당산놀이,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평시조, 가야금, 창작국악 공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마련했다. 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이 예술단체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동기 회장도 노리마당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안 충분히 공감하게 됐단다.

"6회째 이어오는 동안 공연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기획이나 구성의 짜임새도 단단해졌고, 장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노리마당의 공연이 좋아질수록 지역민들이 더 좋은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노리마당이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결국은 이동기 회장의 지역 사랑의 한 축인 셈이다.

동행,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길로 나아가다

"연희패가 지역 대표 문화예술로 뿌리내리길 바라며, 지역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동기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서 축사가 진행되는 풍경은 특별할 게 없는 모습이지만, 노리마당 공연의 축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같은 일정 내에서 공연 시간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싶은 마음에 김성국 회장이 공연 전 식순을 최대한 짧게 꾸렸음에도 이동기 회장의 축사만은 남겼다는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성국 회장은 "늘 노리마당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기에 매년 행사 때마다 축사를 청하고 있다."라며 이동기 회장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이동기 회장의 축사는 그 자체로 그가 앞으로 목표하는 바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그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리마당을 지원하며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그것이 곧 지역과 지역민, 기업이 함께 잘 사는 길이라 믿는다.

김성국 회장과 노리마당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신명나는 장단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한바탕 흥을 일으켜 절로 신나는 의령을 만드는 데 한몫해나갈 것이다.

짜임새가 단단해졌고
장르의 폭도 넓어졌다.
지역민들이
더 좋은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1 연희패 '노리마당'의 설장구놀이
2 창작국악곡 공연
3 거문고산조와 산조춤
4-5 호적사나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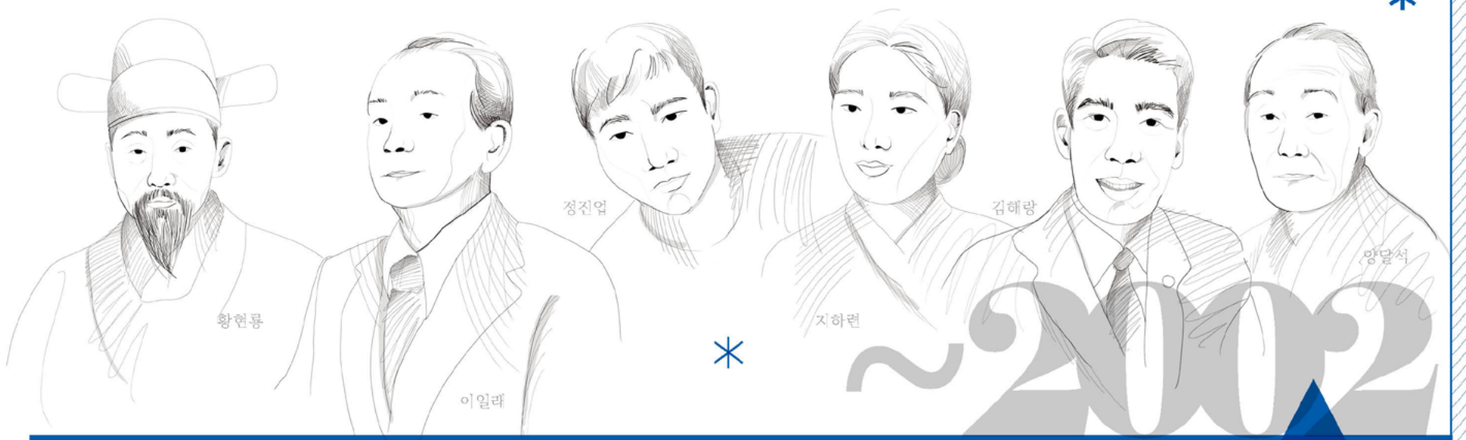
글_BAO 일러스트_문효정

경남아트힐링지도ver.2

artist-055

아티스트 055

경남에는 독보적인 예술혼을 불태운 예술인들이 많다. 치열하게 예술에 천착했던 그들의 삶과 작품은 지역을 넘어 세대를 막론하고 깊은 울림을 전한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전하는 예술인들을, 주요 활동 시기와 함께 정리했다.



Artist-055

묵모란도 10폭 병풍 제작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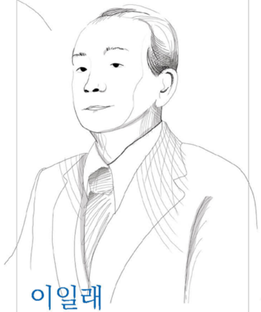
황현룡
黃見龍

1883~1960 | 하동 출생/진주활동

개화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걸쳐 활동한 서화가로, 우리 전통의 수묵의 가치를 작품으로 남겼다. 진주, 사천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하련, 허형, 허백련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 화단의 영향을 받았다. 소나무, 모란, 꽃과 새를 주로 화폭에 담으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쳤다. 지역 화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했으며, 현대미술가 이우환 화백이 어렸을 때 황현룡 화백에게 그림을 배운 것으로 전한다.

'28

동요 〈산토끼〉 작곡



이일래
李一來

1903~1979 | 마산 출생/창녕 활동

대표작　산토끼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 〈산토끼〉를 직사·작곡한 작곡자로, 동요 작곡가이자 교육가로 활동했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닐 무렵 서양음악가 김영환의 득주를 보고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마산을 거쳐 청년 이방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해, 대표작인 〈산토끼〉를 작곡하였다. 이후 여성들의 신교육을 위해 마산에 근화여고를 설립했으나 일제의 탄압에 폐교했으며, 〈이일래 조선동요작곡집〉이 남아 있다. 지금은 창녕에 작곡가와 〈산토끼〉를 테마로 한 산토끼노래동산이 조성돼 있다.

〈카츄사에게〉로 등단

'39

정진업
鄭鎭業

1916~1983 | 김해 출생

대표작　낙동강, 김해평야 등

시인이자 소설가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혼란한 시대 상황과 그 속의 가난한 민중에 대한 글을 썼다. 1939년 문학잡지 〈문장〉에 〈카츄사에게〉가 추천되어 등단했으며, 광복 이후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경남교육〉 편집장을 거쳐 〈부산일보〉 문화부장 등으로 부산과 마산 등 영남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대표작으로는 시 〈낙동강〉, 〈김해평야〉 등이 있는데, 당시 일제의 수탈을 겪었던 지역의 참혹한 모습을 담았다고 평가받는다.

'40

〈결별〉로 등단

지하련
池河連

1912~1960 | 거창 출생/마산 활동

대표작　결별, 도정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 중 여성문학의 한 축을 대표하는 작가로, 본명은 이숙희이며, 이현욱이라는 이름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한다. 어렸을 때 마산으로 이주해 성장했으며, 일본에서 유학했다. 1935년 당시 카프의 지도자로 꼽히던 임화와 결혼하고, 광복 직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문학 활동을 했다. 작가로서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신선한 데뷔작으로 평가받은 〈결별〉을 비롯해 해방 직후 현실의 부조리함에 맞서는 지식인을 그린 〈도정〉 등을 통해 여성 작가의 위치를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해랑무용연구소 개설

'56

김해랑
金海郎

1915~1969 | 마산 출생

한국 무용의 현대화·개방화에 힘쓴 선각자이자 현대무용과 고전무용을 두루 익힌 우리나라 1세대 무용가로, 본명은 김재우다. 일본에서 당시 최고의 근대무용가로 꼽히던 이시이 바쿠와 다카다 세이코 문하에서 무용을 배웠다. 1939년 귀국해 본격적으로 무용 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고향인 마산에서 〈김해랑무용연구소〉를 설립, 후학 양성에 힘썼다. 대표작으로는 1막 5경으로 이루어진 창작무용 〈아리랑〉을 꼽을 수 있다.

'7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양달석
梁達錫

1908~1984 | 거제 출생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가다. 소와 목동을 주제로 한 목가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그 화풍이 한 편의 동화 같아 〈동심의 화가〉라고 불렸다. 1932년 조선미술진람회에 수채화가 입선한 뒤 일본으로 유학해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부산에 정착하였으며, 따란 시절의 판자촌 등 현실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작품들도 많이 남겼다. 1963년에는 경남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74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초대작가로 출품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남아트힐링지도ver.2

artist-055

아티스트 055

김달진, 김춘수, 김해랑, 문신, 박경리, 양달석, 윤이상, 이병주, 이상근, 이성자, 이일래, 전혁림, 정진업, 지하련, 황현룡

1929

〈잡영수곡〉으로 등단

김달진

金達鎭

1907~1989 | 진해 출생

대표작 샘물 등

시인이자, 승려로, 또 교사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29년 〈문예공론〉지에 〈잡영수곡〉이 실리면서 등단했고, 서정주, 김등리, 오장환 등과 함께 '시인부락' 동인으로 문단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는 한편,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한 이후 경전 번역에도 심혈을 기울여 불교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김달진문학상 | 김달진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제정되었다. 시와 문학평론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한다.

▪ 김달진문학관
창원시 진해구 소사로 59번길 13

김달진 시인의 육필원고
사진 출처_도립문학관

'48

첫 시집 〈구름과 장미〉간행

김춘수

金春洙

1922~2004 | 통영 출생

대표작 꽃,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등

대표작인 한국 모더니즘 시인 중 한 명으로 대표작 〈꽃〉의 구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가 '꽃의 시인'이라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등의 작품을 썼으며, 시뿐 아니라 시론도 활발하게 썼다.

▪ 김춘수유품전시관
통영시 해평5길 142-16

시집 〈구름과 장미〉
사진 출처_시와시학사 블로그(위)
사진 출처_시와구름과장미 기념관 내 구름문학관

'49

제1회 국전 입선

전혁림

全爀林

1915~2010 | 통영 출생

'색채의 마술사', '바다의 화가' 전혁림 화백은 독특한 색감으로 한국 추상화를 개척한 서양화가다. 그는 고향인 통영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정색을 비롯하여 빨강, 노랑 등 전통적 오방색을 활용해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전혁림미술상 | 전혁림 화백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는 미술가를 선정해 수상한다. 2019년 제5회째를 맞았다.

▪ 전혁림미술관
통영시 봉수1길 10

비디와 나비 225X185cm 1989 캔버스, 유채
사진 출처_전혁림미술관

'55

단편소설 〈계산〉으로 등단

박경리

朴景利

1926~2008 | 통영 출생

대표작 토지, 김약국의 딸들 등

경남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1955년 단편 〈계산〉, 1956년 단편 〈흑흑백백〉을 〈현대문학〉에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대 현실과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로 문단의 호평을 얻은 것은 물론, 대중들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았다.

박경리문학상 | 전 세계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해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를 선정해 수상한다. 2019년 9회를 맞았다.

▪ 박경리 기념관 |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 ▪ 박경리 문학관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

토지 연작본이 담긴
현대문학 통권 197호

'60

미국 탱글우드음악제에서
교향곡 제2번 방영

이상근

李相根

1922~2000 | 진주 출생

20세기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생전에 '영남 음악의 대부', '한국의 차이콥스키'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교향곡과 오페라, 실내악, 가곡, 합창곡 등 300여 곡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다. 미국의 피바디 대학원에서 현대음악을 공부했으며, 부산대학교 학장을 지냈다. 1960년 미국 탱글우드 음악제에서 교향곡 제2번이 〈미국의 소리방송(VOA)〉으로 세계 41개국 언어권에 방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상근국제음악제 | 이상근 작곡가의 작품 세계와 음악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작된 국제음악제다. 교향곡부터 실내악곡, 독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진작악 모델과 더불어 중 관악세계
사진출처_이상근기념사업회

'65

소설 〈소설 알렉산드리아〉로 등단

이병주

李炳注

1921~1992 | 하동 출생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주로 썼다. 1965년 〈세대〉에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여 등단했으며, 대표작으로 〈지리산〉, 〈관부연락선〉 등을 꼽을 수 있다. 파란만장하던 역사를 문학적으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생전에 80여 권의 작품을 남겼다.

이병주국제문학상 | 2008년 작가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국내외 작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역사와 사회 현실을 잘 녹여낸 소설가에게 수여한다.

▪ 이병주문학관
하동군 북천면 이병클길 14-28

사진출처_이병주문학관

'72

펜현올림픽여서
오페라 심청 초연

윤이상

尹伊桑

1917~1995 | 산청 출생

현대 음악의 대가로, 경남 산청에서 출생해 세 살 때 통영으로 이주하였다. 일본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에서 유학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유럽 현대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1972년 펜텐 올림픽 개막을 위하여 위촉받은 〈심청〉은 그에게 세계적인 작곡가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동양의 정신을 서양의 악기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20세기 5대 작곡가로 꼽힌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 윤이상 작곡가의 타계일인 11월 3일을 기점으로 매년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부문의 차세대 음악가를 발굴한다. 2020년에는 바이올린 부문 콩쿠르가 개최 예정이다.

▪ 윤이상기념공원·기념관
통영시 도천동 150-4

〈나룻집이 시〉 악보
사진출처_통영국제음악제단

'88

서울올림픽 기념
올림픽 1988 조각 제작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공로자 훈장 수상

2002

문신

文信

1922~1995 | 마산 활동

우리나라 추상 조각의 대가인 문신 조각가는 마산과 파리에서 추상조각의 거장으로 활동하였다. 신비롭고 무한한 생명의 역동성에 매혹을 느낀 그는 이를 주제로 한 대형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였다. 유럽 각지에서 150회에 걸친 대형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문신의 한-불 문화 교류의 공로를 높이 여겨 예술문학기사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문신미술상 | 문신 조각가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그를 잇는 한국 미술계의 유망한 작가들을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9년 18회째를 맞았다.

▪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47

〈올림픽 1988〉 조각
사진출처_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이성자

李聖子

1918~2009 | 진주 출생

'한국 최초의 여성 프랑스 유학생' 이성자 화백은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1951년 서른셋의 나이로 파리에서 처음 미술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후 이혼이 넘어서까지 300여 회의 전시에 참여하며, 평생 약 1만 4천 점의 작품을 남겼다. 동양 철학을 서양의 언어를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프랑스의 시인 디셀 뷔트르는 이성자 화백을 '동녘의 여대시'로 칭하였다.

▪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14

대책 작보 가는 실 11월, N 3, 83° 1983
24.5X157.5cm 캔버스, 유채
사진 출처_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문산의 새아침 —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새어들어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앗을소냐

안민영

경남북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운문산

올 한 해 올키즈스트라김해가 받은 선물

박미란
올키즈스트라김해 간사

여름 음악캠프와 정기연주회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나눈 선물을 다시 나누고자 한다.

AllKidstra Gimhae

3-5 올키즈스트라김해 2019 정기연주회

올 한 해 올키즈스트라김해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여름 음악캠프와 정기연주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올 한 해는 좀 더 특별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총 5개의 결연 기업과 함께한 올키즈스트라김해였다.

1-2 2019 여름 음악캠프

여름 음악캠프가 주는 선물 자-신-감

여름 음악캠프가 단원에게 주는 선물 중 하나는 자신감이다. 여름 음악캠프는 아이들이 악기와 더욱더 친해지고 단원들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 때마다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3박 4일 동안 눈을 뜨면 악기 불고, 밥 먹고 악기 불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악기만 부는데도 친구들은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여름 음악캠프를 기다리고 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는 자신감의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 음악캠프만 다녀오면 단원들의 실력이 폭풍 성장되어 있다. 왜냐면 악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캠프 기간 동안 단원들은 레슨을 통해 악기를 배우고 합주를 통해 하모니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간다는 것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된다. 관악단 활동을 통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생기게 된 것이다.

정기연주회가 주는 선물 자-존-감

지난 10월 17일 오후 7시30분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다섯 번째 올키즈스트라김해의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정기연주회 또한 후원기업들 덕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 이번 정기연주회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무료공연으로 다문화 시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컨셉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음악 및 클래식, 팝 음악들과 각국의 국기와 소품을 이용하여 무대를 준비하였다.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는 단원들은 여름 음악캠프 기간 동안 성장한 실력으로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 정기연주회가 다가오면 점점 고조되는 단원들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도 단원들은 크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었기 때문에 큰 무대라고 해서 떨고 그러지 않는다. 무엇보다 무대 체질인 올키즈스트라관악단 친구들은 연습 때는 물론이거니와 무대 위에서는 더욱더 빛난다.

멋지게 연주를 끝내고 무대를 내려오는 단원들에게서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여러 감정들을 스스로 컨트롤하며 그동안 갈고닦았던 실력들을 무대 위에서 모두 쏟아 내고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생각과 감동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성취감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음악으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태어난 올키즈스트라김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비교당하면서 항상 불안했던 아이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때론 과격한 행동과 말로 주위 사람들을 당혹시킬 때가 종종 있었다. 그 아이에게 악기라는 친구가 찾아왔고 아이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가 음악을 통해 사라져가면서 가족에게는 인정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선생님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올키즈스트라김해 관악단을 통해 모이는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 못 하던 아이들이 수다쟁이가 되고, 자신만 알던 아이들은 서로를 챙겨 부족한 부분들을 협력할 줄 아는 배려 깊은 아이들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음악이 아이들에게 주는 힘이자 기적이다.

올키즈스트라김해는 13년도에 태어났다. 올키즈스트라김해 관악단 단원들은 대부분 경남 김해지역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거나 저소득,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윈드오케스트라이다. 올키즈스트라김해 관악단은 지역 내 문화소외 아동·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심리·정서·사회적으로 건강히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6

7

8

6-8 2019 여름 음악캠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단원들로 이루어진 관악단으로, 관악단이 생긴 13년도부터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명의 음악 전공생이 배출되었고 올해 1명이 음대에 진학하게 되어 총 6명의 전공생이 배출되었다. 현재 악기 전공을 준비 중인 친구 2명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공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본 관악단의 초기 합주 연주 영상을 보면 연주가 아니라 소음으로 들리던 때가 있었다. 그랬던 관악단이 이제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단체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꿋꿋이 기다려주는 관악단의 지휘자님과 강사님, 이영심 이사장님께서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버텨 주셨고, 또한 본 단체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주신 경남메세나협회와 결연기업 (주)글루칸, 서륭기계(주), 에당식품(주), 화진데이크로(주), 아이사랑병원 덕분이다. 경남메세나협회와 결연기업들 덕분에 올 한 해도 무사히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산동성 문화교류 방문기

문화교류의 물길을 잇 - 다

나순용
경남문인협회 이사

**이른 아침 햇살이 가로수에 가을빛을 뿌리고 있다.
경남문인협회는 해외 문화교류의 물길을 잇고자
산동성으로 향했다.
이번 문화교류 사업은 산동성 조장시의
초청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Day 1.

중국 청도 공항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쯤, 그리고 다시 청도에서 여섯 시간을 달려 태안(泰安)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의 명소 '지하대열곡' 태산과 조래산의 분지 지하에서 수억 년을 거쳐 자연이 만들어낸 동굴과 종유석이다. 뚝뚝 떨어진 물방울이 오랜 세월을 거쳐 이토록 신비로운 작품을 빚어내다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태산과 지하의 기운을 모두 받고, 바로 유가(儒家) 본향인 곡부로 향했다.

Day 2.

공묘(孔廟)는 공자를 기리는 사당으로 자금성, 대묘와 함께 중국 3대 궁정 건축미로 손꼽히고 있다. 이 일대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노(魯)나라 이후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공자의 사상과 건축물이 잘 보존 관리되었다는 점에 감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수백 년이 된 아름드리 향나무들이었다. 이곳의 역사를 그대로 지켜보았을 고목은 하늘을 찌를 듯 위용을 자랑하며 보존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지라 도시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수많은 관광객 가운데 중국의 중·고등학생들의 행렬이 끝을 모를 정도로 줄을 이었다. '문화 대국'을 꿈꾸는 중국이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근처 숙소인 권리빈사 호텔에 들어서니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손님을 맞이하였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배움의 즐거움을 설파한 글귀가 아닌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공자가 살던 세상에 들어선 느낌이 들었다.

1

1 지하대열곡
2 태산지하대열곡
3 삼공(공묘)

Day 3.

다음 날 아침 일찍 산동의 신흥 산업도시인 조장시(枣庄市)로 이동하여 국제문화 교류 협약과 학술토론회를 추진하였다. 조장시는 춘추시대 유학자 묵가와 세계 최초로 수레를 만든 해중, 주경야독의 대명사인 광형 등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을 배출한 곳이다. 또 공자와 맹자의 고향과 근접해 있어 문화와 예술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이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도시로 급성장을 하며 위상이 크게 높아진 도시이기도하다.

협약식은 조장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진행된 경상남도와 조장시의 문화예술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양측 대표는 문화자산과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 조장시 대표단이 경남을 답방하여 구체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4 문화 교류 협약식
5 태아장

조장시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경남문인협회 김일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7명, 한중우호협회 본대북 대외협력 부회장과 임채삼 상임이사 등 9명, 왕언호 조장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 장절이 부주석 등 예술단체 대표 20여 명과 외사판공실 담당자, 언론사 기자단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각각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구축하며 발전해 왔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정치적인 문제들로 다소 껄끄러워지기도 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부터 교류의 물꼬를 트고 만남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꾀하며 이상적인 교류사업의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문인협회 김일태 회장은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의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현대 예술 관련 영역에서는 다소 낙후된 중국 조장시와의 교류를 통해 경남 예술과 문화사업분야의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전파하고, 상생에 바탕을 둔 한·중 상호 발전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조장시가 마련한 공식 만찬을 끝내고 숙소가 있는 고성 태아장(台儿庄)으로 왔다. 이곳은 북경과 항주까지 연결된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의 중간 지점으로 상업이 번창하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군사적 전략요충지였기도 한 이 곳은 중일전쟁 때 폐허가 되었다가 2008년부터 5년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옛 성은 운하 문화와 민간 주택 건축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들고나는 길은 수로와 나란히 있고 수양버들이 운치 있게 늘어져 시가(詩歌)가 절로 흘러나올 것 같았다. 특히 태아장의 백미는 탄성을 자아낼만한 야경이 아닐까 싶다. 흐르는 물결에는 고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고색창연하게 비쳤다.

GNWriters Association

5 태아장 야경

6 남경대학살기념관

7 남경대학살기념관 평화의 탑

8 유람선 야경

Day 4.

11월 초순이지만 날씨가 온화하여 빡빡한 일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장 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한 시간 반을 이동하여 남경에 도착하였다. 창밖에는 끝없이 줄지어 선 버드나무들이 아직도 푸른 잎을 흔들이 주었다.

남경에서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남경대학살기념관'이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되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고발하는 곳이다. 남경대학살은 역사 속에서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하고 야만적인 범죄 중 하나다.

기념관 외부에는 끔찍한 학살 장면들이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주검이 된 어린아이를 안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엄마의 조각상에서 숨이 턱 막혔다. 기념관이 워낙 크고 넓어 아주 천천히 잘 따라 들어가야만 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니 어두운 조명과 향내가 우리를 안내했다.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지고 경건해졌다.

전시실을 가득 채운 학살에 관한 증거 사료와 사진, 영상, 사용된 무기, 관련 모형, 일본군의 일기, 당시 이곳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의 기록까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잔혹한 장면에서는 얼른 도망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유린당한 어린 아이와 여성들의 모습 앞에서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이와 같은 시대적 고통을 겪었다. 분노와 비통함이 가슴을 찔러댔다. 또 이 아픔과 치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열이 목숨을 잃었던가. 전시관 끝에는 〈历史可以宽恕 但不可以忘却. 前事不忘 后是之師 :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희생자 300,000명...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희생자들이지만 그 영혼들 앞에서 나는 한 인간으로서 사죄하고 싶어졌다. 그런데도 아직 일본정부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뻐근하였다. 광장에 높이 서 있는 '평화의 탑'이 비둘기를 높이 들고 서 있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에게 외치는 듯 했다.

오후에 명효릉을 돌아본 뒤, 저녁 식사 후에는 부자묘 주변 관광특구를 둘러보았다. 수십만의 인파가 쏟아져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번화한 상가에는 먹을거리, 볼거리가 넘쳐나고, 기념품 가게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 도시 한가운데의 진회하(秦淮河) 수로를 따라 유람선을 타고 고풍스러운 주변 야경을 감상하였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실제 이 물길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물길을 따라 사람이 이동하고, 삶이 이어지고, 문화가 전달되었던 것처럼 이번 경남문인협회와 조장시문학예술계연합회가 틔운 물길이 양국 간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4박 5일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찾아오도록 길을 잘 잇고 온 터라 모두가 마음 뿌듯하였다.

8

글_노경무 사진_BAO

하동, 느리고도 빠른.

'하동'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지리산? 화개장터? 우리가 잠깐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있는 사이, 하동은 더 젊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탈 바꿔어 있었다. 스릴 만점 레포츠 시설과 대하소설 속 배경지가 공존하는 경상남도 하동군. 다음에서 제안하는 여행 코스를 눈여겨 봐두시길.

하동송림공원 01

금오산에서 내려와 섬진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좌측으로 소나무 숲이 눈에 들어온다. 조선 영조 21년에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숲이라고 한다. 본래의 용도가 어찌 되었건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백사장과 소나무가 한데 어우러진 관광명소이다. 빽빽하게 들어선 소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으면 옛 설화의 주인공이 된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 산책 후 시장기가 느껴진다면, 송림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동재첩특화마을에 들러 재첩 요리를 맛보기를 추천한다.

-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3
- 055) 880-2475

경남 하동군은 지난 2009년, 슬로 시티(Slow city)로 지정되었다. 자연이 선사하는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에 대봉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인공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야생 차밭에서는 녹찻잎이 느긋하게 돋아난다. 국제슬로시티 연맹은 아마 이런 하동의 여유로움을 높이 산 모양이다.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갈 것 같은 하동에서도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하동 금남면에 있는 금오산 짚와이어다.

하동알프스짚와이어 02

해발 849미터의 금오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짚와이어는 그 길이가 장장 3km에 달하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길이다. 그 소문을 듣고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하동의 레포츠 명소를 앞다투어 담아갔다고 한다. 이곳에서 긴장감 넘치는 액티비티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날씨 운이 따라준다면 사천부터 시작하여 삼천포, 남해, 여수까지 펼쳐진 한려해상 다도해 파노라마를 한눈에 담을 수도 있다. 마지막 회차를 선택한다면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으니 하동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선정해도 좋을 것이다.

- 금남면 경충로 493-9
- 055) 884-7715

매암제다원 03

하동에는 여러 녹차 밭이 있지만, 이곳 매암제다원은 하동의 다른 명소들과 인접해 있어 방문하기 편리하다. 조선 시대 때 실제 사용된 다기가 전시된 차 문화 박물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청마루로 이어지는데, 사시사철 푸르름을 뽐내는 녹차 밭이 넓게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대충 찍어도 멋있게 나오는 포토존이니 사진 찍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카메라를 들어보자. 박물관 바로 옆 매암다방에서는 여러 가지 맛의 차를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 악양면 악양서로 346
- 055) 883-3500

박경리문학관 & 최참판댁 04

매암제다원에서 최참판댁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차의 속도를 조금 줄이기를 청한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조형물들을 그냥 지나친다면 많이 서운할 것이다. 악양길을 자연 속 아트갤러리로 변신시킨 주역들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박경리 문학관이 있다. 박경리 작가의 손때가 탄 유품들과 토지의 초판본이 전시돼있고, 20주년을 맞는 토지문학제가 열리니 올해 10월은 이곳을 방문하기에 최적기이기도 하다. 소설 토지 속 공간적 배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최참판댁 구경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 서서 뒷짐을 지고 평사리 들판을 내려다보는 만석꾼의 기분을 잠시 느껴보는 건 어떨까?

- 악양면 평사리길 79
- 055) 882-2675

스타웨이하동 05

섬진강과 평사리 들판을 한눈에 보려고 힘들게 등산을 할 필요가 더는 없다. 게다가 빈백에 편안히 기대앉아서 고소한 카페라떼도 함께 즐길 수 있다니. 이게 바로 금상첨화 이닌가. 도시의 편리함과 세련됨을 포기할 수 없는 여행자들에게 권하는 하동의 새로운 명소이다. 2019년 8월에 문을 연 곳으로 카페, 스카이워크,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다.

-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110
- 055) 884-7410

글_정인정 사진_BAO

무학 90년, 나눔 35년 100년의 희망으로 도약

#딱좋은데이

'90s

'35s

경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무학'이 창립 90주년을 넘어 100년사를 향한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 기업이 90여 년 한길을 갈 수 있는 뚝심과 신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기업마다 가치는 다르겠지만 무학의 그것은 어쩌면 '선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 90년 역사에서 무려 35년을 지역민과 함께 나눠왔기 때문이다. 1985년 무학장학재단으로 출발하여 오늘의 '좋은데이 나눔재단'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신념을 지켜온 무학.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가 빛난다.

경남메세나의 큰 기둥

수천수만 개의 초록 병이 빙글 뱅글 줄지어 돌아가는 무학의 생산라인, 그 모습도 진풍경이지만 공장 곳곳에는 걸려있는 미술작품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우선 작품 수가 여느 미술관보다 더 많다.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도 작품이 걸렸다. 걸려있는 작품들도 심상치가 않다. 지역의 내로라 하는 작가들은 물론, 신선하고 참신한 작품들도 꽤 눈에 띈다. 무학이 지금까지 격년제로 개최해온 '대학생 미술대전' 수상작품들, 지역은 물론 전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무학이다.

2

3

공장과 공장 사이에 떡하니 미술관이 자리했다. 경남 지역 작가의 작품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공간, 지역 예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과 강당까지 갖추고 있다. 경남의 미술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작품 구매를 해온 지 오래다. 무학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지역 복지관 같은 곳에 대여해 전시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4

2020년에는 경상남도가 서울 인사동에 마련할 갤러리에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고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 오래 전부터 지역의 열악한 미술 창작환경을 잘 살피며 지원해 온 무학이다.

2019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미술 분야 외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하게 도움을 전하고 있다. 특히 무학이 지원한 고성오광대는 전수교육과 공연을 주로 하는 전통예술단체인데, 2019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성오광대의 저력도 굉장하지만 무학에서 후원해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소식이 반갑고 고맙다"라는 좋은데이 나눔재단 한동진 본부장. "가능한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를 도우려고 애쓴다"라는 게 무학의 신념이란다. 오케스트라 지원 등 현재까지 메세나를 통한 매칭 사업 2~3건. 그 외에도 지정기탁사업을 통한 예술단체 후원을 많이 이어가고 있다. 메세나와 인연도 92년부터 꽤 오래되었다.

2018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고성오광대 공연 모습

1 무학 본사에 있는 굿데이 뮤지엄 전경
2 무학 본사 복도에 걸린 미술작품들
3-4 굿데이 뮤지엄 내부

아무래도 지역의 크고 탄탄한 기업이 앞장서 주니 경남메세나 입장에서도 무척 든든하다.

현재 '좋은데이 나눔재단'에서 사회공헌 전담

1985년 무학장학재단으로 출발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무학의 사회공헌 사업은 부산 경남 지역 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시작은 1986년 무학장학재단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점점 일이 커졌다. 2014년에 좋은데이 나눔재단으로 이름 바꿨으며 현재 240억 원 정도 출연 규모로 성장했다.

5

6

한동진 본부장은 "원래는 장학재단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도 지원해야겠다. 문화예술도 해야겠다. 자꾸 늘어났죠. 거절을 잘 해야 하는 자리인데, 회장님도 저도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7

현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만 사회복지, 장학, 문화사업 등 항목별로 50가지, 세부적으로 100여 건이 훌쩍 넘는다. 한 달에 10~15회 정도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워 재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5-7 무학청년봉사단 '미세먼지 OUT' 캠페인

무학이 진행해온 여러 장학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할 사업이 따로 있다. 바로 희망장학사업. 약 10여 년 전 지역의 중학생 25명을 지역교육청 추천을 통해 선발하였고, 그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온 것이다. 그 결실로 2019년부터 졸업생들이 배출된다고. 서울대 입학생만 2명, 25명 중 단 1명만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 성장하였다. "공부 잘해서 우수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재호 회장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한동진 본부장(좋은데이 나눔재단). 10년을 매월 50만 원씩 늘 지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전국에서도 이런 장학지원 사업은 무학이 유일하다고 한다.

공부 잘해서 우수한 사람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졸업생들이 또 멘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무학의 또 하나의 신념. 점점 더 좋은 에너지와 기운들이 젊은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가고 또 그렇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살만해지는 것이 아닐까.

무학 창립 90주년 기점으로 대학생 국토대장정 사업 시작

작년 7월에는 무학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실시했다. 젊은이들이 특히나 힘든 시대, 요즘 애들에게 뭔가 동기 부여를 해주고 싶어서였다. 무학 마산 본사에서 출발해 지리산까지 가는 여정, 모든 지원을 무학이 했다.

하루 30㎞를 행군하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지원자 103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부산 경남지역 젊은이들 모두가 완주에 성공했다. "젊음 에너지를 체감하고 전달받을 수 있어서 더 없이 좋았다." 라고 전하는 담당자 정강현 사원. 앞으로도 격년으로 젊은 대학생에게 격려를 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대장정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장, 연탄, 떡국·팥죽나눔, 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나누는 무학의 사회공헌 행보는 해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무학의 굿데이 뮤지엄 전시실엔 늘 지역 작가의 작품이 걸린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희망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다.

8

90주년을 기점으로 100년사를 내다보며 매년 한 해 한 해 특별한 사업을 한 건씩 만들어가겠다는 무학의 나눔재단. 그 따뜻하고 뜻깊은 행보에 응원을 보낸다.

100년사를 내다보며 매년 특별한 사업을 한 건씩 만들어가겠다는 무학의 나눔재단

8 굿데이 뮤지엄 전시실 내 희망나무

9-10 제1회 딱! 좋은데이 국토대장정

9

10

메세나 뉴스 01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2019 경남메세나협회 결연식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9월 25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2019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열렸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준비한 이 행사에서는 황윤철 경남메세나협회장을 비롯해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하여 도내 기업인, 예술단체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결연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대기업 결연과 중소기업 매칭 펀드 결연, 신규 결연팀부터 12년 차의 결연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결연팀들이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2019.9.25.

경남메세나협회는 창립 첫해인 2007년 10개 팀 결연으로 시작해 2013년 100개 팀 결연 달성 후 2017년부터 3년 연속 150개 팀 이상의 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217개의 회원사를 유치해 144개 중소기업과 136개 예술단체가 중소기업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9개 대기업과 42개 예술단체가 대기업 결연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지원금이 총 26억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민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1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과 첼리스트 최경은
2 창원페스티벌앙상블의 축하 공연
3 결연식 단창

황윤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메세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역민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결연사업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이에 화답하듯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수준이 곧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가 왔다"면서 "경남도에서도 기업과 예술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맺은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이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메세나를 통해 기업과 문화예술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고 결연식의 하이라이트인 머플러 교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우리 전통 혼례에서 청실홍실의 결합이 신랑신부의 인연을 상징하는 것처럼 결연을 맺은 기업인과 예술인들은 청색과 홍색 머플러를 서로의 목에 감아주며 메세나로 맺은 인연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2019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는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행사 시작에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과 첼리스트 최경은이 누에보 탱고의 진수라 할 수 있는 A. 피아졸라의 'Oblivion(망각)'과 화려한 스케일과 우아한 선율이 돋보이는 G.F. 헨델의 'Passacaglia'를 연주하며 결연식의 시작을 알렸다. 또 축하공연으로 남성중창단 창원페스티벌앙상블이 무대에 올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 넘버인 'Belle(아름답다)'와 이탈리아 칸초네 'Il Mondo(끝없는 세계)', 애니메이션 명작 「라이언 킹」의 삽입곡 'The Lion Sleeps Tonight'을 불러 부드러운 화음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2019.11.26.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 고장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피아니스트 이주은과 창원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크로스오버 테너 박완, 뮤지컬 배우 아이비 그리고 가수 김범수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차가운 바깥바람과 달리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첫 무대는 작곡가 김지만의 교향시 '화류정한(花柳情恨)'이 열었다. 매국노에게 당당히 맞선 진주의 의기(義妓) '산홍'의 기개를 담은 이 작품은 천년 전통의 문화예술도시인 진주에서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설렘과 관객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경남메세나협회가 위촉한 창작곡이다.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주은이 무대에 올라 P.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3악장을 열정적으로 연주하여 관객을 압도했고, 크로스오버 테너 박완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깊어가는 가을밤에 어울리는 이탈리아 칸초네와 뮤지컬 영웅의 넘버들을 열창했다. 창원시립교향악단은 솔리스트, 가수들과의 협연은 물론 A.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4악장 '신세계로부터'를 역동적으로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전달했다.

공연장의 분위기는 뮤지컬 배우 아이비와 김범수의 등장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아이비는 자신이 출연한 뮤지컬 작품의 넘버들을 열연하며 열정의 무대로 열기를 끌어올렸다. 김범수는 자신의 대표곡인 '보고싶다', '끝사랑', '나타나'는 물론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열창하며 관객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BNK경남은행과 함께 개최하였다.

1 창원시립교향악단
2 피아니스트 이주은
3 가수 김범수
4 크로스오버 테너 박완
5 뮤지컬배우 아이비

'2019 경남메세나대회'가 12월 4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올 한 해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결산하는 이날 행사는 메세나상 시상식과 문화예술영재들의 공연 그리고 유니버설발레단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2019.12.4.

경남메세나협회 황윤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메세나 활동을 펼쳐온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상생하며 멀리 함께 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경남 문화의 뿌리가 올해 한층 더 튼튼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21세기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여러분의 메세나 활동은 성공적인 전략"이라며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을 당부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5개 기업과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2명의 영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석자 모두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이들의 메세나 활동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1 2019 경남메세나대회 수상자 단체 사진
2 문화예술영재 김나연 양의 트럼펫 연주
3 문화예술영재 최다영 양의 판소리 공연

대 상

경원벤텍㈜

공경열 대표이사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기업'

장유여성합창단과의 아름다운 동행

2008년 경남메세나협회의 창립 멤버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을 펼쳐온 경원벤텍㈜은 장유여성합창단과 중소기업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11년째 동행하고 있다. 경원벤텍㈜의 후원으로 합창단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다. 가을이면 공장을 무대로 장유여성합창단은 '회사도 무대다'라는 작은 공연을 펼친다. 바쁜 업무 일정으로 제대로 된 문화공연을 즐기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가을날, 회사에서 감상하는 합창단의 하모니는 직원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기업

해양플랜트 부품을 가공하는 경원벤텍㈜은 딱딱하고 투박한 공장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바꾸기 위해 문화예술경영을 적극 활용한다. 매칭펀드 사업 참여 외에도 국악단체, 재즈연주단, 오페라단, 미술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원벤텍㈜의 문화경영은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직원들의 정신적 풍요를 위해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는 사내 분위기 조성하고, 공연 관람비, 감성 지원비,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다채로운 직원 복지를 펼쳐 애사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메세나인상

김윤세 대표이사

㈜인산가

'음악은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보약'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다

㈜인산가 김윤세 대표이사는 국내 죽염 산업계를 이끄는 선두주자다. 끝없는 혁신과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며 병 걱정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의사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보약

김윤세 대표이사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방법은 제품개발 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떠올렸다. 경남메세나협회 창립멤버로 참여한 ㈜인산가는 현재 부회장사로 책임을 다하며 경남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음악은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보약이라는 생각으로 CWNU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단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나의 죽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불에서 녹이고 굳히는 작업을 3년간 아홉 번 반복한다. 아홉 번 구워야 비로소 죽염 하나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는 작품 하나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문장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 그림 한 장을 그려내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예술가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경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화경영상

남명산업개발㈜ 이병열 대표이사

오케스트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명산업개발㈜은 2007년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창단할 때부터 기꺼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열악한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를 경남의 자랑스러운 예술 브랜드로 끌어올리는 데 일등 공신의 역할을 해냈다. 특히 세계적인 솔리스트와의 협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지역 청소년과 음악 애호가를 대상으로 '경남행복오케스트라' 창단을 도왔다. 이와 같은 성과 뒤에는 남명산업개발㈜의 든든한 지원과 남다른 음악 사랑이 있었다.

예술인 삶의 질을 높이다

남명산업개발㈜은 2012년부터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여 오케스트라 외에도 경남전업미술가협회, 가야오페라단 등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명산업개발㈜ 이병열 대표는 평소 '신은 자연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다'고 말한다. 그는 신이 만든 자연 위에 문화 예술의 감성이 깃든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공헌상

㈜부경 김찬모 대표이사

우리의 얼, 국악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부경은 국악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악분야 후원에 큰 뜻을 품고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하는 손양희국악예술단과 결연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예술단이 주최하는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는 단숨에 전국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실사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경연대회로 자리 잡았다. 기업 환경이 어렵더라도 민족의 얼을 지켜가는 일은 멈출 수 없기에 ㈜부경과 손양희국악예술단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명품 공연을 위한 노력

㈜부경은 손양희국악예술단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하며 명품 국악 공연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고 있다. 그 결과,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예술단의 공연은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rts&Business상

㈜대경 양소정 대표이사 & 지리산 6·25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 이영재 대표

호국정신 일깨우는 나라사랑 음악회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다. ㈜대경과 지리산 6·25 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기억하고, 지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일을 해내고 있다. 호국선열들을 기리는 추모제로 시작한 이 행사는 ㈜대경과의 만남 이후, '추모 음악회'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만들 것

선조들의 넋을 기린다는 정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음악회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매년 5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음악을 매개로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유가족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대경은 이 뜻깊은 음악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품 문화제로 발전시켜 함양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자 한다.

문화예술영재

김나연 트럼펫, 선화예고 2학년 & 최다영 판소리, 전주예고 3학년

2019 경남메세나대회 문화예술영재 부문에는 김나연 학생과 최다영 학생이 선정되었다. 섬세한 귀와 절대음감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2018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금호 영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김나연 학생은 A.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c단조 1악장〉을 트럼펫 버전으로 편곡하여 참석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판소리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에 매료되어 판소리를 시작하여 전국단위의 국악대회에서 대상을 휩쓴 최다영 학생은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우리 소리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판소리 명창임을 입증했다.

두 학생에게는 BNK경남은행의 후원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메세나 뉴스 04

전국 메세나단체 공동 세미나 : 기업 근로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미래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 방식, 근로환경은 물론 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화) 을지로 페럼타워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업 근로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스테이지원 박진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서우석 교수와 현대백화점 컨텐츠팀 이해찬 차장, KT&G 제주본부 김범석 과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선희 전문위원, 세종문화회관 김태진 팀장이 참석해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 활성화 방안과 메세나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기업관계자 및 문화예술 지원 기관, 예술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워라밸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화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때

기조발제자로 나선 서우석 교수는 워라밸 시대를 맞아 여가시간이 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 또한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사이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그 해결방안으로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메세나협회와 같은 매개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로 소통하는 기업

이어 문화를 매개로 고객 및 대중들과 소통하는 모범 기업으로서 현대백화점과 KT&G 제주본부 사업 담당자들이 문화경영 철학과 사례를 소개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업계 후발주자로서 갖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경영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그리고 KT&G 제주본부는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의 변화와 메세나의 역할

세미나는 종합토론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조선희 위원은 메세나 활동에서 본격적인 지방재정분권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지자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메세나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우석 교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근로환경과 예술계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지금, 메세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기업들을 대변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메세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메세나 뉴스 05

회사도 무대다, 찾아가는 음악회

신년회에서 실내악 공연으로 산뜻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 연말에는 임직원이 단체로 연극을 관람하며 잊지 못할 문화송년회를 보낸다. 예술강좌를 열어 직원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직원들은 나른한 오후 재즈 연주를 들으며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기도 한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문화송년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사들의 이야기다.

2019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딱딱한 분위기의 사무실과 공장에 예술의 향기를 퍼뜨렸다. 지난 10월 1일 경남 대표 향토기업인 ㈜무학이 창립 90주년을 맞았다. 본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90주년 창립기념식에 협회는 유니크 클라리넷 앙상블을 파견하여 따뜻한 목관의 소리로 축하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다.

10월 10일에는 양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친화기업인 화인테크놀로지의 창립 3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매년 창립기념일이면 화인테크놀로지는 임직원은 물론 평소 회사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한마음 가족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벌써 12년째다. 이 음악회에는 양산윈드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행사의 격을 높이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물로 안겨주었다. 매년 한마음 음악회를 즐기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창립기념행사로 왜 음악회를 하는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대표님의 취지를 알 것 같다면서 우리 회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도우면서 함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던 12월,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1층 로비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청아의료재단 병원 송년음악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아의료재단과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있는 경남프리모앙상블과 프리마앙상블은 매년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로비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환우들과 고객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크리스마스 이브, BNK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한 고객들과 점심식사를 막 마친 직원들은 뜻밖의 캐럴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2층 카페 공간에서 'BNK경남은행 런치 앙상블: 크리스마스 스페셜' 공연이 열린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공연이지만 성탄을 맞아 고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 공연에는 재즈베이시스트 이원이 이끄는 밴드가 참여하여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메세나 뉴스 06

경남메세나협회 문화나눔사업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사업이 올해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어 문화예술로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었다.

즐거운 나눔티켓

진주 |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1_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문학예술위원회 그리고 BNK경남은행이 함께한 〈2019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가수 김범수와 뮤지컬 배우 아이비, 크로스오버 테너 박완, 피아니스트 이주은과 창원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하여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게 치러졌던 이 공연에 협회는 진주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 100명을 초청했다. 이번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을 통해 가람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다니엘지역아동센터, 멋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셀리지역아동센터, 이현지역아동센터, 칠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대규모의 콘서트를 경험하며 관객이 지켜야할 매너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뜻 깊었다는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창원 | 호두까기 인형

2_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레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이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에 초청된 영신원과 햇살경화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발레는 어렵다는 편견을 깨준 공연이었고,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즐거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오리지널 발레 프로그램에 비보잉, 탭댄스 등 역동성을 가진 춤을 가미하여 극에 재미를 더한 와이즈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의 공연은 지루할 틈 없이 어린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김해 | 크리스마스 콘서트

3_ 크리스마스 당일,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슈퍼히어로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바로 그것인데, 슈퍼히어로 영화 속 음악과 크리스마스 스타일의 명곡들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로 만날 수 있었던 이 공연에 협회는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들을 초청했다. 사춘기를 겪으며 고민과 걱정이 많은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기를 바란다.

행복한 나눔공연

성심원과 함께한 Love Together Concert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은 12월, 유독 쓸쓸한 곳들이 있다. 창원시립 치매요양병원인 성심원도 그런 곳 중 하나일 것이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성심원 어르신들을 위해 경남메세나협회와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자동차판매가 함께 뜻깊은 공연을 개최했다. 9년째 매년 연말이면 이 곳에서 'Love Together Concert'를 주관하는 경남첼버쏘싸이어티는 성심원 강당에 모인 250여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실내악공연은 물론 가야금 병창 공연과 장구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또한 경남첼버쏘싸이어티의 단장인 차문호 교수가 이끄는 꿈의 오케스트라 창원도 무대에 올라 1년간 열심히 연습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어르신들은 손주들의 재롱을 지켜보듯 밝은 표정과 활기찬 박수로 화답했다.

진해재활원과 함께한 행복한 나눔콘서트

겨울 날씨답지 않게 유난히 따뜻했던 12월 진해재활원에서는 '행복한 나눔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어쩌면 이 콘서트에 모인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날씨마저 포근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진해재활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공연에는 진해재활원 거주인들은 물론 후원인들도 모두 모여 음악을 즐기고 소통하며 실컷 웃었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연 이원밴드는 '보랏빛 향기', '오늘 같은 밤이면'과 같은 흘러간 대중가요들을 밴드 특유의 파워와 흥겨움이 드러나는 버전으로 편곡하여 재활원 거주인들에게 선물했다. 이어 트로트가수 최지나가 무대에 올라 경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평소 공연장을 방문하기 힘든 여건의 중증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음악을 느끼고 즐기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활원의 거주인들은 최고의 리액션과 호응으로 나눔콘서트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글_정인정 사진_BAO

베토벤 탄생

[1770.12.17~1827.03.26]

Ludwig van Beethoven

25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이주은, 베토벤을 말하다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천재

'악성(樂聖)',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자이자 낭만파 음악의 시초라 불리는 작곡가. 별칭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베토벤'의 해가 돌아왔다.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서 베토벤 관련 연주회가 이어질 터. 그러니 베토벤을 먼저 만나보는 건 어떨까?

그간 무대에서 베토벤의 작품들을 선보였던 피아니스트 이주은 교수를 만났다. "누가 '따따따 딴~' 이 네 음만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나가며 곡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혁명적이고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 아닌가요?" 그녀가 말하는 베토벤은 어떤 작곡가일까?

지루할 틈 없는 변화무쌍한 베토벤의 색깔

대부분 작곡가는 각자의 색깔이 있기 마련이다. 쇼팽은 쇼팽이라서 슈베르트는 슈베르트라서 좋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베토벤만의 색깔은 무엇일까?

"베토벤만큼은 한 음악회 가서 베토벤만 2-3시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흥망이 있잖아요? 흥하고 쇠하는 이 한 시대를 아우르는 작곡가가 베토벤이고, 그 시대를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으로 비판했으며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매개자의 역할까지 한 사람이죠."

베토벤은 초창기 고전주의 하이든의 영향으로 곡을 쓰다가 이내 자신의 색깔을 알아내고는 형식을 과감하게 깨기 시작했다. 당대에는 쓰지 않던 리듬과 형식으로 혁명적인 작곡 기법을 사용했다는 베토벤. 대표적으로 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살펴보면, 32곡이 모두 다 다르다. 처음 4개 정도는 하이든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라 하이든의 색깔이 어렴풋이 묻어난다. 이후 6, 7번까지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가다가 8번 비창 소나타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베토벤이 나오기 시작한다.

"쇼팽이나 모차르트는 도넛을 구웠다가, 튀겼다가, 속으로 팥을 넣어보기도 하고, 크림으로 채우기도 하는 이런 식의 변화라면, 베토벤은 도넛을 튀겼다가 갑자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내고, 또 과감하게 파스타를 만들어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심포니나 소나타를 연달아 들어도 지겹지 않아요. 그 와중에 베토벤의 시그니처는 다 있어요. 누가 들어도 '아, 이거 베토벤 곡이구나' 알 수 있죠."

베토벤 후기,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귀족들에게 작품을 들려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고전 음악 특유의 딱 떨어지는 화성의 흐름이 대세였다. 그런데 베토벤의 음악에서는 이런 흐름이 모두 깨지고 기승전결도 뚜렷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거부했다. 듣기에 좋지 않고 연주도 어려워 모두들 '뭐야?' 하며 외면했던 음악이었던 것.

"후기 소나타 작품들을 보면 형식이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음으로 표현하는데 베토벤은 88개 건반을 모두 썼어요. 보통은 잘 안 쓰는 건반까지 폭넓은 음역대를 모두 활용한 겁니다."

Ludwig van Beethoven

베토벤의 음악을 예측하지 말자.
그렇게 귀가 열리는 순간
베토벤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베토벤은 괴팍한 사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천재일뿐

일반인들에게 베토벤은 상당히 괴팍한 작곡가로 인식돼 있다. 베토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전형적인 초상화도 베토벤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데 한몫하는 듯하다. 베토벤은 정말 괴팍한 사람이었을까?

이에 대해 피아니스트 이주은 교수는 다른 해석을 전했다. "괴팍하다기보다 눈치를 안 보는 작곡가였어요. 그 당시 음악가 지위가 높지 않았고 귀족의 지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이 많았죠. 그런데 베토벤은 구속받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오히려 베토벤은 조카를 오랫동안 보살핀 따뜻한 사람이었다. 까다로운 사람이었지만 히스테릭한 사람이라는 건 오해라는 것이 이주은 교수의 생각이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는 결코 이상한 사람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베토벤 음악을 듣고 울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로 무덤을 만들면 에베레스트보다 높을 거예요. 베토벤은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베토벤의 편지나 일기를 보면 외모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모두의 호감을 사는 외모와 성격을 겸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상한 재능을 가졌고 마이웨이(my way)를 고수하면서 타협하지 않은 성향을 가진 천재. 베토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곡
베토벤 이해하지 못하면 치지 못할 곡들

피아니스트 이주은 교수가 가장 애정하는 베토벤 작품은 어떤 것일까? 그녀에게는 특히 마지막 소나타 3개가 의미 깊다. 베토벤 소나타는 교과서 같은 곡이라 많이 가르치기도 연주하기도 하는 곡이다.

베토벤 친필 악보
사진출처: greenwichtime.com

"피아니스트에게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 3개는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베토벤 인생 역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밀도 높은 걸작들입니다. 30번은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난 작품으로 고전주의로부터 낭만주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돈된 고전적 형식 안에서 사랑스럽고 유연하게 흐르는 1, 2악장과 달리 3악장에 이르면 그의 성격이 쏟아져 나옵니다. 장대하고 끓는듯한 열망을 보여줘요. 하지만 절제되어 있죠. 조잡하지 않거든요."

31번으로 넘어가서는 베토벤도 지친 기색이 보인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을 준다. 32번에서는 다시 고전적인 형식을 엄격하게 취하면서도 심오하고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주은 교수는 평가한다. 말년에 접어들며 원숙해진 그의 음악성에 비범한 상상력이 더해져 악기의 한계성을 초월하는 악보를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다.

"후기 소나타라고 해서 하나의 특징으로 묶인다기보다 한 곡 한 곡 알을 낳듯 툭, 툭, 툭, 만들어낸 느낌이랄까요?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곡은 베토벤이란 작곡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에 3곡을 한 무대에서 연주했었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더 베토벤을 깊게 이해하게 되면 다시 연주해보고 싶어요."

피아니스트에게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 3개는
아주 특별한 작품

최고의 베토벤 연주자로
빌헬름 켐프 추천

"켐프가 치면 베토벤이 보여요."

똑같은 곡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색다른 곡이 되기 마련. 그래서 연주자 역시 창작자이다. 수많은 연주 가운데 이주은 교수가 추천하는 베토벤 연주자는 누구일까 궁금해졌다. 그녀의 추천은 독일의 피아니스트 빌헬름 켐프(Wilhelm Kempff)다.

"고3 때 처음으로 빌헬름 켐프의 연주를 들었어요. 켐프 연주는 실수도 많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교과서래요. 이상하죠? 그때는 이걸 듣다 보면 나도 틀릴 것 같아서 안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 들고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이 쌓이고 안목도 높아지고... 완벽에 가까운 연주들을 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임청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때 다시 켐프를 꺼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켐프는 음 하나하나 세세하고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곡 전부를 이해하면서 전격적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틀리는데도 틀리는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피아니스트가 잘 치면 연주자가 부각되는데, 켐프가 치니까 베토벤이 보였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왜 켐프가 대단하다고 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베토벤이 주는
선물을 기다리자

베토벤의 곡들은 쇼팽, 모차르트, 하이든처럼 편안하지는 않다. 편안하게 시작하다가도 쉽게 가지만은 않는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변화무쌍하고 깊이와 폭이 무한한 작곡가 베토벤. 베토벤의 음악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자연스레 등을 의자에 편안히 기댄 채 '도대체 뭘 주려고 하지?' 기대하며 마음을 열어보자는 게 이주은 교수의 조언.

"그렇게 귀가 열리는 순간, 베토벤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Pianist **이주은**

서울예고 졸업, 연세대학교 재학 중 도독
뮌헨 국립음대 디플롬 최고점수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하엔 국제피아노콩쿠르, 리하르트 라욱스 국제베토벤콩쿠르 외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
독일 바이에른 예술가상 수상
現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경남은행

부회장사
경남오페라단
농협경남본부
(주)무학
(주)센트랄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야나세
(주)화인테크놀리지

감사사
(주)정일
청호산업(유)

이사사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텍(주)
고성오광대
김도기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주)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주)지엔티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주)현대단조
화성G&I(주)

회원사

가야BBS(주)
(주)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케븐선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주)
(주)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구려
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야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 머큐어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솔개발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메직(주)
(주)네오씨티알
늘푸른 요양병원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주)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주)
(주)대호엠엠아이
(주)대호테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두남화학
디씨엠(주)
디케이락(주)
라온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칭대교
명제한의원
뭉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음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북성산업
(주)사릭
사보이호텔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원테크(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병원
(주)서영시스템
서진이알피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쎄노텍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영광산업 주식회사
(주)영남엘피씨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주)으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ONE
(주)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주)웰템
유림건설(주)
(주)유림철강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주)
(주)이앤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성공(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F.P.S
(주)장한
정남종합건설(주)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주)종은콘서트
주용테크
중앙건설(주)
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주)
(주)지에스니
창원상공회의소
(주)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주)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악수의원
츄고쿠심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케이씨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쿠쿠홈시스(주)
태광실업(주)
(주)태완정공
(주)태헌메가텍
(주)프스텍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해수종합건설(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홍기종합건설(주)
(주)화영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주)화인에이티씨
화일종합건설(주)
(주)환웅정공
현대로템
홍일기업(주)
STX조선해양(주)
STX엔진(주)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개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100만원 이상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상생하며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술단체 워크숍 |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들의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메세나지〉 발간 |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협회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과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 메세나콘서트 |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LH 10년, 새로운 시작

「사람중심 행복중심」

10
2009~2019 LH 열정 10주년
힘껏 10년, 멀찟 100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민의 행복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100년의 내일을 위해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가 되겠습니다.

100년 국민행복을 만드는
LH 10년의 새로운 약속

- **주거복지** | 맞춤형 주거지원 330만 가구 달성
- **도시조성** | 41곳, 53㎢의 도시 조성으로 주거안정 강화
- **주택건설** | 맞춤형 공공주택 76만호 건설
- **균형발전** | 지역혁신 개발 사업 완성
- **도시재생** | 도시재생뉴딜 200곳 참여, 15조원 투자
- **해외사업** | 해외사업에 사업비 15% 투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리산 청정

산골란

깊고 푸른 그곳,
해발 250미터 지리산 자락에 안긴
산골농장은 자연이 품고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청정 계란농장입니다

premium Sangol Egg

지리산에서 나고
지리산이 키웠습니다

Sangol Museum
산청 산골박물관

Sangol Egg
산골농장은
지리산의 선물입니다

깊고 푸른 그곳,
해발 250미터 지리산 자락에 안긴 **산골농장**은
자연이 품고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청정 계란농장입니다.

국내양계 유일하게
환경친화 축산농장지정

환경친화 축산농장이란?
축산농가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지정하는 제도

산골농장
산청양계영농조합
www.sangolegg.com

모두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청년의 꿈과 도전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BNK경남은행은 꼭 필요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BNK 경남은행

2020 GYEONGNAM 예술지원 매칭펀드

〈2020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신청접수

1차 접수 2020년 2월 중
2차 접수 2020년 7월 중
※1차 접수에서 매칭펀드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 2차 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음

결연형태

1:1 결연 1개의 기업이 1개 예술단체 지원
1:多 결연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多:1 결연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제출서류

기 업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심사기준

기 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신청 사업 추진 계획, 과거 활동실적, 기업 교류협력 활동 계획 등

지원금액

기업후원금과 펀드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지원금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예술단체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문의 |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2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MECENAT
with you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ARTISTREE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